

# 젝스키스, 18년만에 YG색 입고 리스타트

## 정규 5집 '어나더 라이트' 발표

1세대 아이돌 그룹 '젝스키스'가 18년 만인 지난 21일 오후 6시 정규 5집 '어나더 라이트(ANOTHER LIGHT)'를 발표했다.

앨범 제목에는 올해 데뷔 20주년을 맞은 젝스키스만의 '새로운 콘셉트, 차별화된 색깔과 빛을 담은 앨범'이라는 뜻을 담았다. 젝스키스 2막의 시작인 셈이다.

이날 오후 앨범 공개 직전 청담동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보컬 강성훈은 "정규 5집은 팬들과 다시 시작하는 느낌이에요. 리스타트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젝스키스는 지난해 4월 MBC TV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을 통해 극적으로 재결합했다. 콘서트로 팬들과 첫 만남을 가진 이후 같은 해 10월 공개한 16년 만의 신곡 '세단어로 음원차트 정상을 석권하며 화려한 귀환을 알렸다.

이후 자신들의 기존 히트곡을 요즘 흐름에 맞게 편곡 새로운 편곡과 점축점을 넓혀왔다.

리더 은지원은 초창기 마음으로 돌아간 것 같다고 했다. "데뷔하는 마음"이라는 것이다.

1997년 데뷔한 젝스키스는 앨범 사이마다 공백기를 가졌던 당시 그룹들보다 활동이 활발했던 팀이다.

2000년 해체할 때까지 3년 동안 4장의 정규 앨범과 스페셜 앨범을 내놓았다.

장수원 역시 "기존에는 조금 급하게 신곡을 냈다"고 과거를 돌아봤다. 하지만 이번 앨범에는 공을 들였다. "시간을 많이 들여 노력을 한 앨범이에요. 각자가 모두 열심히 했죠"

총 9곡의 신곡이 실린 이번 앨범의 타이틀곡은 두곡을 내세웠다.

밝고 경쾌한 '특별해'와 젝스키스 멤버들의 가창력을 부각시킨 '웃어줘'다.

상반된 느낌의 곡을 타이틀로 내세운 건 1세대 아이돌의 자신감으로도 읽힌다.

무엇보다 '위너 송민호와 이승훈 '에픽하이' 탈블로 퓨처비온스 등 이들을 영입한 YG엔터테인먼트 소속 식구들이 대거 참여해 눈길을 끈다.

은지원은 "YG색깔이 젝스키스와 어떻게 버무러지는지 눈여겨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은지원은 3세대 그룹으로 통하는 위너와의 작업에 대해 특기했다. "요즘 감성이랑 우리 감성이랑 융화되는 지점을 잘 찾아준 것 같다"는 것이다.

"아이돌계 조상" '아이돌계 전설'이라는 수식을 달고 다니는 팀이지만, 쟁쟁한 제 3·4세대 그룹들과 현역으로 맞붙게 됐다. 젝스키스 멤버들 역시 "무게감과 책임감이 따른다"고 털어놓았다.

하지만 대선배들이 만큼 순위에 연연하지 않는 의연함을 보였다.

은지원은 "무대 위에서 즐기고 재미있게 활동하는 모습을 후보여주는 것이 맛있는 선배"라고 웃었다.

"마음은 20대지만 치열하게 싸우는 입장이 아닌 즐겁게 활동하는 게 가장 큰 목표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깊이가 있는 음악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수원은 "후배들에게 롤모델이 되는 그룹이 되고 싶다"고 비뚤다.



1세대 아이돌 그룹 '젝스키스'가 18년 만인 지난 21일 오후 6시 정규 5집 '어나더 라이트(ANOTHER LIGHT)'를 발표했다. /뉴시스

## 전주시장배 유도대회 우석고 체육관에서 열려

전주시가 주최하고 전주시유도회가 주관하는 제21회 전주시장배 유도대회가 24일 전주우석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초·중·고·대학·일반부 선수 500여명이 참가해 체급별 개인전과 단체전 경기를 펼쳤다.

유도는 예도를 중요시하는 무술로, 심신단련과 인내심 함양에 우수한 종목으로 인정받고 있다.

특히, 유구한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 유도는 올림픽과 세계 선수권대회, 아시안 게임 등 각종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민족의 자긍심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관계자는 "우수한 선수들이 한자리에 모여 그동안 갖고 있던 실력을 뽐내며 자신의 기량을 점검해보는 좋은 기회가 됐을 것"이라며 "건강하고 멋진 경쟁을 통해 서로의 장점은 공유하고, 단점은 고쳐나가며 한 단계 성숙해나가는 기회가 됐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민근기자

## 평창올림픽 성공기원 전주시장배 빙상대회 개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을 기원하고, 미래 대한민국 빙상계를 이끌어갈 꿈나무 육성을 위한 빙상대회가 전주에서 열렸다.

전주시가 주최하고 전주시빙상경기연맹(회장 문성주)이 주관하는 '제15회 전주시장배 빙상대회'가 지난 23일 선수 및 임원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주빙상경기장에서 개최됐다.

지구촌의 축제인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 기원을 담은 이번대회는 빙상의 꽃인 쇼트트랙(초·중·고등부 성인부 유치부) 및 피겨종목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전주시빙상경기연맹은 이번 대회를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물론 미래 빙상꿈나무도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관계자는 "이번 대회에 참가한 학생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기량 유감없이 발휘하고, 미래 한국 빙상의 꽃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민근기자

## 기성용, 3개월 만에 팀 훈련 참여

### 30일 U-23 경기 출전할 듯

기성용(스완지시티)의 복귀가 임박했다.

스완지 시티 폴 클레멘트 감독은 22일(한국시간) 왓포드전을 앞두고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성용이 지난 여름 수술 이후 오늘 훈련에 복귀했다"고 알렸다.

스완지는 23일 리버티 스타디움에서 왓포드와 2017~2018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6라운드 경기를 치렀다.

기성용이 팀 훈련에 참가한 것은 3개월 만이다.

기성용은 지난 6월 2018 러시아월드컵 아시아최종예선 8차전 카타르 원정경기 이후 국내서 수술을 받고 재활에 집중해왔다.

클레멘트 감독은 그러나 기성용을 무리



하게 투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클레멘트 감독은 "기성용이 이번 주부터 출전 명단에 포함되기는 아직 이르다. 그를 다시 보게 될 건 매우 긍정적이다. 기성용은 오는 30일 셀틱과의 23세 이하 팀 경기 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민근기자

## 장동건, 6년 만에 TV 드라마 출연

배우 장동건(45)이 6년 만에 TV 드라마로 복귀한다.

22일 KBS에 따르면 장동건은 내년 상반기 방송 예정인 드라마 '슈츠(Suits)' 출연을 확정했다.

장동건의 마지막 TV 드라마 출연작은 2012년 '신사의 품격'이다.

이번 작품은 2011년 미국USA네트워크가 내놓은 동명 드라마의 한국판이다.

미국 최고 로펌의 변호사가 무엇이든 한 번만 읽으면 기억하는 천재를 로스쿨에 받아들이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리는 법정극이다.

올해까지 7개 시즌이 만들어진 인기 드라마 시리즈다.

장동건은 대한민국 최고 변호사로 꼽히는 '최경서를 연기한다.

장동건과 함께 호흡을 맞출 배우는 박형식이다.

박형식은 괴물 같은 기억력을 가진 신인



변호사 '고연우'를 맡는다. 이번 작품은 내년 상반기 KBS 2TV에서 방송될 예정이다.

/뉴시스



## 데뷔 7년차 B1A4, 미니 7집 '롤린' 오늘 발매

데뷔 7년차를 맞은 그룹 '비원아이포(B1A4)'가 오늘 오후 6시 미니 7집 '롤린(Rollin)'을 공개한다.

타이틀곡 '롤린'은 리더 진영의 자작곡이다. 누군가를 향해 빠져드는 사랑의 마음을 반복되는 롤링으로 표현한 곡이다.

이번 앨범의 재킷은 3가지로 구성된다.

B1A4의 새로운 모습을 담은 '블랙', 그동안의 걸어온 여정을 담은 '그레이', 앞으로 이어질 청춘의 시간인 '블루' 등 총 3가지 버전이다.

소속사 WM엔터테인먼트는 'B1A4 멤버들의 끊임없이 노력하는 음악에 대한 열정과 함께 앞으로도 새로운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한 그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소개했다.

/뉴시스



#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mailto:ndtherapy119@gmail.com)